

[카 논] 엡5:18 그리고 너희는 포도주 술에 취하게 되지 말라 그것 가운데 그것은 무질서한 생활이 있으니 오히려 너희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져라

[개 정] 엡5: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을 받으라

[공 동] 엡5:18 술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생활이 거기에서 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가득히 받아야 합니다.

[K J V] 엡5:18 술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새 번역] 엡5:18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현대어] 엡5:18 술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그 길에는 많은 악이 숨어 있습니다. 그보다 성령님에 취하여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현대인] 엡5:18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십시오.

①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 바울은 본 절에 어리석음의 구체적인 예로 잠 23:29-35을 인용하여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한 생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당시 술 취하는 일은 불신자 세계에 있어서 일반화되어 있었으며 초대 교회에서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다(딤후전 3:3. 딤후 1:7, 2:3, Wood, Foulkes, Hendriksen). 술 취함은 단순히 그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생활이 무절제하게 되고 방탕하기 쉽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여기서 '방탕'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소티아'는 술 취함의 현상을 잘 나타내 주는 단어로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방종' 혹은 '돈과 욕욕의 무절제한 낭비'를 의미했다(Wood). 이것은 신약성경 탕자의 비유에서 '허랑 방탕한 생활'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눅 15:13).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서 생활하려면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한 생활 곧 어리석음의 일을 금해야 한다.

오직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 - '성령님의 충만'은 '성령님의 내주'나 '성령님의 인침' 그리고 '성령님 침례'와는 다르다(1:13;4:30; 요 3:5;14:16; 롬 8:9; 고전 3:16). 성령님의 내주나 성령님의 인침 그리고 성령님 침례는 단회적 사건인 반면에 '성령님 충만'은 구원의 때뿐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행 4:8,31, 6:3,5, 9:17, 13:9,52)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행 10:38, 11:24. 살전 1:5. 벵전 4:11, Lincoln). 즉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에게 내주하신 성령님께서(롬 8:9. 고전 12:3) 그리스도인을 온전히 지배하며 인도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한편 '충만을 받으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플레루스데'는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다. 이것은 다음의 내용을 함축한다. (1) '현재 시제'는 성령님 충만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채워져야 함을 시사한다(Lincoln). (2)'수동태'는 성령님 충만이 인위적(人爲的) 체험이 아니라(갈 3:2,5) 성령님에 의해서 체험됨을 시사한다(Wood). (3) '명령형'은 성령님 충만이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임을 시사한다(Wood).

②5: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메 메뒤스케스데 오이노 엔 호 에스틴 아소티아). 본문을 문자적으로 다시 번역하면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 방탕함이 있다'가 된다. 여기서 '이는... 것이니'로 번역된 '엔 호 에스틴'은 전치사, 관계사, 동사가 나열된 형태로서 '그것 안에 ~이 있다'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관계사 '호'가 지칭하는 것은 '술 취함'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목록에 '술 취하는 자'도 포함시킨 바 있다(고전 6:9-10. 갈 5:19-21). 이러한 측면에서 바울은 그의 저서들을 통해 교회 안의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 (딤후전 3:3)라고 권면했으며, 집사들 역시 '술에 인 박이지 않아야 한다' (딤후전 3:8)라고 권면

하였다.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정신이 혼미하여 판단력이 흐려지고, 뇌의 평형감각을 주관하는 중추 신경이 마비된다. 술의 폐단을 기록한 잠 23:33-35에는 술에 취하면 그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고 마음이 망령되며 그 몸은 마치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 누워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자연히 술에 취한 자의 삶에는 무절제와 방탕함이 따라다니게 된다.

한편 ‘**방탕**’에 해당하는 ‘아소티아’는 본래 ‘구원하다’를 의미하는 단어 ‘소조’에서 유래한 파생어에 부정 불변사 ‘아’가 접두된 형태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사용되었던 단어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올바로 교정할 수 없음’, ‘방탕한 생활’로 확대되었다. 술에 취한 자는 건전하고 바른 이성에서 벗어나 무절제하고 혼미한 태도로 살아감으로써 방탕에서 헤어 나올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삶은 성령님 충만한 삶과 완전히 대조적이다.

**5:18 오직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알라 플레루스데 엔 프뉴마티).** 한글 개역 성경은 접속사 ‘알라’를 ‘오직’이란 부사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이는 영어의 ‘not...but’ 구문과 같이 전자를 부정함을 통하여 후자를 강조하는 ‘메...알라’ 구문에 나오는 접속사로서 본 절에서는 ‘술 취하다 것’과 ‘성령님 충만 받는 것’ 사이를 강하게 대조하며, 술 취하는 대신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에 무게를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강한 금지와 더불어 강한 명령을 하고 있는가? 이는 당시 사회의 종교적 배경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헨드릭슨(Hendriksen)에 따르면, 당시 헬라 세계 이방인들은 감정적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신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신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술에 취하였다고 한다. 당시 헬라 세계에는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Dionysous) 즉 바커스(Bacchus) 제의가 행해졌는데, 현란한 춤과 노래와 음주와 환락이 동반되었고, 그 제의가 절정을 이루면서 사람들은 황홀경에 빠져 들어 가곤 하였다. 이러한 사회·종교적 배경에 매우 익숙해져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영혼의 평정을 얻고, 기쁨을 얻는 길은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님 충만함이 라고 가르쳤던 것이다.

본문에 나타난 ‘**충만을 받으라**’에 해당하는 ‘플레루스데’는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고, ‘성령님의’에서 ‘의’에 해당하는 전치사는 ‘~안에서’, ‘~에 의해’ 또는 ‘으로’라는 뜻의 ‘엔’이다. 이러한 문법적 요소와 문자적 의미를 고려하여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너희는 성령님에 의해 가득 채워지라(NASB, but be filled with the Spirit)”이다. 헬라어에서 명령형의 현재 시제는 행위의 계속성을 강조한다. 즉 성령님 충만은 일시적이거나 단회적인 행위로 그쳐져서는 안 되며 항상 지속되어야 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현재 시제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수동형의 문장을 능동형으로 바꾸어보면 ‘성령님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NLT, let the Holy Spirit fill and control you)’가 된다. 이는 성도가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령님을 지배하거나 그분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성도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님 충만의 본질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본문이 명령문이라는 사실은 성령님 충만은 선택 사항이 아님을 보여준다. 성령님 충만은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이루어져야 하는 필연적 사항이므로 성도는 매일매일 성령님에 사로잡혀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

한편, **성령님 충만에 대한 신약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성령님 충만을 받는 방법은 회개와 간구이다. 성령님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며(행 2:38,39), 성령님의 충만은 어느 날 우연히 임의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눅 11:13. 행 1:14, 2장).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나 스테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들로 기록하고 있다(행 2:4, 4:8, 6:8). 즉 주님의 말씀에 복종

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 구속사의 큰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모두 성령님에 충만한 자, 즉 성령님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일한 사람들이었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성령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성령님의 충만을 통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 때에 큰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이며, 근심에서 해방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평정을 얻을 것이다. 더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해 갈 것이며, 그런 자만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③5: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바울은 본 절에서 어리석음의 구체적인 예로 잠 23:29-35을 인용하여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한 생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당시 술 취하는 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일반화되어 있었다. 헬라 세계에서는 ‘디오니시우스’ (Dionysius), 로마에서는 ‘박카스’ (Bacchus)가 ‘술의 신(神)으로서 매우 유명했다. 이러한 신들을 추종하는 사교(邪敎)의 축제에서 술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Hengel). 뿐만 아니라 술 취하는 일은 초대 교회에서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다(딤후 3:3. 딤후 1:7, 2:3, Wood, Foulkes, Hendriksen). 술 취함은 단순히 그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생활이 무절제하게 되고 방탕하기 쉽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여기서 ‘방탕’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소티아’는 술 취함의 현상을 잘 나타내 주는 단어로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방종’ 혹은 ‘돈과 육욕의 무절제한 낭비’를 의미했다(Wood). 이것은 신약 성경 탕자의 비유에서 ‘허량 방탕한 생활’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눅 15:13). 아무튼 술 취함은 ‘무절제한 방탕한 생활’과 ‘방종한 행동’과 ‘무모함’과 관련되어 있다(딤후 1:6. 벰전 4:4). 이러한 방탕에 계속 빠져 있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의 표시가 된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에게 구원이 있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서 생활하려면 우선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한 생활을 금해야 할 것이며, 혹 그러한 죄 가운데 빠졌던 자라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여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오직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님의 충만’은 ‘성령님의 내주’나 ‘성령님의 인침’ 그리고 ‘성령님 침례’와는 다르다(1:13;4:30;요 3:5;14:16;롬 8:9;고전 3:16). 성령님의 내주나 성령님의 인침 그리고 성령님 침례는 단회적인 반면에 ‘성령님 충만’은 구원의 때뿐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행 4:8,31, 6:3,5, 9:17, 13:9,52)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 수 있게 한다(행 10:38, 11:24. 살전 1:5. 벰전 4:11, Lincoln). 즉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에게 내주하신 성령님께서서 (롬 8:9. 고전 12:3) 그리스도인을 온전히 지배하며 인도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본 절과 관련하여 ‘술 취하는 것’과 ‘성령님의 충만’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박윤선). ① 술에 취한 자의 전신(全身)이 술에 감염된 것처럼, 성령님의 감화력이 성도의 신심(身心)에 가득한 것이며, ② 술이 그 취한 자의 생각과 행위를 주관하듯이, 성령님께서 그 성도의 생각과 행위를 주관하시는 것이다.

한편 ‘충만을 받으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플레루스데’는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다. 이것은 다음의 내용을 함축한다. ① ‘현재 시제’는 성령님 충만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채워져야 함을 시사한다(Lincoln). ② ‘수동태’는 성령님 충만이 인위적(人爲的) 체험이 아니라(갈 3:2, 5) 성령님에 의해서 체험됨을 시사한다(Wood). ③ ‘명령형’은 성령님 충만이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것임을 시사한다(Wood).

**④(5: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

본 절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은 ‘카이 메 메뒤스케스테 오이노 엔 호 에스틴 아소티아 알라 플레루스데 엔프뉴마티’이다. 이를 직역하면 ‘그리고 너희는 포도주에 취하게 되지 말라. 그것에 방탕이 있다. 도리어 너희는 영 가운데 충만하게 되라’이다. 이 문장도 15절과 17절에 이어 ‘... 하지 말고 ... 하라’ (메 ... 알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다. ‘어두움과 빛’의 대조, ‘어리석음과 지혜’의 대조, 그리고 여기에서는 ‘술 취함과 성령님 충만’의 대조로 이어진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과 관련된 것으로 어두움에 속한다(롬 13:12-13). 성경에는 술 취함을 경계하는 언급들이 종종 등장한다(마 24:49. 눅 12:45. 고전 5:11. 딤후 3:8).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기록도 있다(고전 6:9-10. 갈 5:19-21).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과 성적인 타락이다(롬 13:13).

‘방탕’에 해당하는 ‘아소티아’는 부정 불변사 ‘구원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소조’에서 유래한 명사에 ‘아’가 접두된 형태서 문자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함’이라는 뜻이며, ‘방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신약의 다른 곳에서도 이 단어는 술 취함과 관련되어 나타난다(벧전 4:3-4). 술에 취하여 방탕에 이르는 어리석은 행위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는 행위로 대치되어야 한다. ‘오직’으로 번역된 부사 ‘알라’는 ‘성령님의 충만’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다스림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성령님의’에 해당하는 ‘엔 프뉴마티’에서 ‘엔’이라는 전치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에 의해 충만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충만을 받으라’로 번역된 ‘플레루스데’는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의 ‘플레로오’의 2인칭 복수 수동태 현재 명령형으로 성령님으로 가득 채움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도록 하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되어 성령님 충만이 지속되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성령님의 충만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입으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인식하여 행하는 능력을 부여받는다. 성령님과 지혜의 연관성에 관하여는 앞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1:17). 성령님의 충만은 성령님의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실천의 삶과 직결된다(약 2:26).

**⑤5: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아소티아)은 문자적으로 ‘저축하지 않음’, ‘낭비’의 뜻으로 윤리적인 면에서의 ‘부도덕’과 ‘허랑 방탕한 생활’(눅 15:13)을 의미하는 말로 이교도들의 윤리상태를 잘 표현하는 말이다(Trench),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신전 제사에서 술에 취하여 춤을 추었고 술 취함이 자랑거리로 여겨졌었다고 한다. 바울은 이러한 사회 문화적 배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교도들과 같이 술 취함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로서의 절제되고 경건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직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플레루스데)는 현재 수동명령형이다. 여기서 현재 시제는 성령님 충만을 받는 것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늘 받아야 할 것임을 나타낸다. 즉 성령님의 인치심(엡 1:13)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님의 충만은 계속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다(행 4:8,31, 6:3,5, 9:17). 또한 수동태는 성령님 충만케 하는 주체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보여 준다. 명령형은 비록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지만 성도들은 성령님 충만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님 충만’을 대비시키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가 외관상 유사성을 보이기도 하면서 본질적으로 대조되기 때문이다. 술 취한 사람이 술의 힘에 자신을 내맡기고 행동하듯이 성령님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

여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술 취함은 무절제와 방탕을 가져오고 성령님 충만은 절제와 거룩한 행실을 낳는 것으로 대조된다.

### ⑥5: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다 말라.** 성도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성도는 독주나 포도주나 맥주나 무슨 술이든지 먹지 않아야 된다(잠 23:29-34, 롬 13:13 참조). 어떤 사람은 성경에 술 취하다 말라고 했으므로 취하지 않도록 한두 잔 먹으면 괜찮다고 한다. 그러나 술은 한 잔 부터 취하는 것이며 만일 한잔 마실 때에 조금도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 백 잔을 마셔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한잔씩 백 잔을 마셨기 때문이다. 성도가 이 세상주의에 취하는 것도 술 취하는 것이다. 계시록 17:2-5에 “음녀의 포도주에 취했다” 는 말은 이 세상주의에 취했다는 뜻이다.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는데서 방탕이 나온다.

**오직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 성도가 성령님의 완전한 인도와 주장을 받으라는 것이다. 요한 16:13에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고 하였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이다(사도행전 2:4 해석 참조).

**⑦엡 5:18 술 취하지 말라...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 - 이것은 술 취하는 대신에 성령님에게 취하라는 말씀과 같다. 성령님을 충만히 받는다 함은, (1) 술에 취한 자의 전신에 술이 감염된 것처럼, 성령님의 감화력이 신자의 심신(心身)에 가득한 것이겠으며, (2)술이 그 취한 자의 생각과 행위를 주관하듯이, 성령님께서 그 신자의 생각과 행위를 주관하시는 것이겠다. 사람은 누구나 다 허약(虛弱)한 자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 "겨와 같다"하였고 (시 1:4), "안개"라고 하였고(약 4:14), 또한 "삼오라기 같다"하였고(사 1:31), "연기 같다"고 하였다(시 102:3). 그러므로 인생은 어떤 힘에 붙잡히려고 애쓴다. 어떤 힘에 붙잡히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모든 파란을 이겨낼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약함을 이겨보려는 심리로 술에 취한다. 그러나 사람이 술에 취함은 자기를 빠뜨림이니 잘못된 행위이다. 사람은 성령님에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으니, 인간은 그 은총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성령님 주시기를 원하시는데(눅 11:13), 사람들은 이 선물 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원하는 자는 이 선물을 받는다(계 22:17). 성령님 충만한 자라야 이 괴로운 세상에서 기쁘게 살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미쳤다고 한다(행 26:24. 고후 5:13). 그러나 실상은 성령님 충만해야 인생으로서의 정상적인 자가 된다. 성령님 충만하지 못한 자는 다 허약한 자이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미쳤다. 그들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사 5:20)들이다. 죄를 떡 먹듯하는 자들을 어찌 정상이라 하랴!

**⑧18. 술 취하다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의 생활의 요소로서 시간의 절약을 말한 후 (16절), 둘째로 육적 절제를 논한다. 성령님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가장 찾아보기 힘든 희귀종이 되고 말았다. 어떻게 성령님 충만하지 않고도 성령님의 열매를 모방할 수 있는가를 배웠기 때문에 현대의 보수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은 외양만 성령님 충만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했을 뿐이다. 그것은 심리학, 기독교 교육학, 윤리실천, 인격 양성, 인위적인 표정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괜찮은 자들이긴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

**⑨LAB. 엡5: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들은, 바울이 신자들의 삶의 ‘이전과 이후’ 를 대조시킨 전체 단락(4:17-5:20)에 비추어 생각해야만 한다. 술 취함은, 바울이 이미 타락한 것이라고 선고한(4:22), 옛 생활방식 및 이기적인 욕망과 연관이 있다. 어떤 사람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제기했던 문제(고전 11:21) 같은 잘못된 행동이 에베소교회 안에나 성찬 예식 도중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린도교회 안에 있던 문제가 확산되었다는 증거는 희박하다. 또 다른 견해는, 술 취함이 이교 제사 의식의 일부였을 뿐 아니라, 이 문화의 문제 거리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다. 가장 그럴듯한 견해는, 신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은 술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바울은 어두움 가운데서의 삶과 빛 가운데서의 삶을 대조시킨 것(5:8)과 똑 같은 방식으로, 일부러 술 취함을 성령님 충만과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 말들을 기록했다. 로마서 13:12-13과 데살로니가전서 5:6-8에서, 바울은 또한 술취함을 어두움과, 맑은 정신을 빛과 연관시켰다.

술 취함은 방탕으로 이어진다. 이 말은 술 취한 사람의 낭비성(물자와 삶 자체의)뿐만 아니라 통제 불능을 가리킨다. 이런 것들은 신자들의 삶 속에 자리잡을 여지가 없다. 게다가, 바울에 따르면,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술이 필요없다. 바울은 일시적인 ‘고조’ 를 낳는 술 취함과 영구적인 기쁨을 낳는 성령님 충만을 대조시켰다 ‘우리가 ... 다 한 성령님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전 12:13). 여기서 바울의 말의 초점은 술 취함의 금지에 있기보다는(신자들은 이미 그것을 이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계속적으로 성령님 충만해야 하며 성령님 안에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의 강권에 있다. 사람이 술에 취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행동이 그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준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 임재로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의심할 여지없이 보여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어야만 한다.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5:18이 음주 반대 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자주 인용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논점은 술에 취하느냐 아니냐보다 더 깊은 데까지 나아간다. 보다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이 - 혹은 누가 -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성령님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든지 둘 중 하나다. 다른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초라한 대역(代役)이다. 술 취함은 자제력을 잃게 만들고,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할 수 있다 - 성령님 충만은 절제(갈 5:23)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도와준다.

‘충만을 받으라’ 는 말은 모든 신자를 향한 명령이다. 그러나 신자들이 그 충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신자들을 충만하게 하신다.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이 ‘충만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너희가 이미 성령님으로 충만해졌으므로, 그 상태를 유지하라’ 고 말한 것이었다. 이 말들은 또한 현재시제로서, 성령님으로 계속 채워짐을 나타낸다. 신자들은 ‘단번에’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동행함으로써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⑩플빛. 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함을 문제 삼은 것은 그것이 어두움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거기에 굴복하는 자 모두를 지혜롭지 못하게 하며, 경계 및 열심의 적이 된다.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둔 것은 술 취함의 사회적인 측면이다. 즉 술은 교제할 때 기분을 좋게 해주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정신을 크게 양양시킨다. α 및 @에서 생긴 용어인 @는 저축과 반대되는 말로서 낭비, 해이, 풀어지는 상태 따위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파멸도 이에 해당된다. 탕자의 삶을 보라.

그의 삶은 난폭한 삶이었으며, 모든 것을 과멸케 하는 삶이었다.

**오직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 자꾸 술을 찾음으로써 마음을 풀려고 하지 말고 가슴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영접해 보라. 그러면 그분이 오사 가슴을 풍성히 채워 주실 것이다. ~ 성령님께서 영감해 주시는 기쁨을 구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늘의 처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흥겨운 감정을 주흥가(酒興歌)를 통해 쏟아 놓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찬송을 통해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

**⑪이상근.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의 생활의 요소로서 시간의 절약을 말한 후(16절), 둘째로 육적 절제를 논한다. 여기에도 술 취한 자와 성령님에 취한 자(행 2:13), 술 취하여 방가하는 것과 신령한 찬미를 대조시키고 있다.

**방탕** (아소티아)은 문자적으로는 "저축하지 않는"의 뜻이며 벌게이트에는"사치"(luxuria)로 되어 있다. 이 낱말이 바로 이교도의 윤리상태를 잘 묘사하는 말이다(Trench). 더구나 그 당시 에베소는 변화한 도시로서 방탕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술 취함은 그 사회에서의 자랑이었다. 그들은 신들 앞에 예배할 때 술에 취하여 춤추었고, 에베소의 부인들은 로마의 장군이 입성할 때 그 수레 앞에 모여 춤췄다고 한다. 알렉산더 대왕은 술을 많이 마시는 자에게 상을 주었고 이런 경기에서 술 마시다가 죽은 사람이 30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더구나 술을 발명한신 디오니시우스(Dionysius)의 제일에는 그것이 심했다. 이와 같이 술과 방탕의 세대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절제를 교훈한 것이다. 플라톤은 상기한 술의 신의 제일 외에는 금주를 장려하였고 철인 다이오지니스에게 누가 술을 주었더니 그는 이를 받아 땅에 부어 버리므로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물으니 "술과 내 몸을 다 같이 낭비하는 것 보다 낫다"고 답하였다 한다. 또한 옛날 이적이 술을 만들어 하우에게 바쳤을 때 하우는 그것을 맛 보고는 망국주라 하였고 그의 오대손 걸왕에 가서 응했다는 고사가 있다. 성서에 술에 대한 교훈은 풍부하다(삼상 1:14, 잠 20:1, 23:30, 31, 딤후전 3:3, 벴전 4:3 등 참조).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 현재 수동명령형으로 늘 받으라는 뜻이다. 마이어는 이 수동태가 인간편의 거부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지적한다. 그릇의 뚜껑을 열어 놓고 빗물을 받는 것처럼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는 뜻이다. 이 충만은 성령님의 인치심(1:13) 과는 구별되어야 할 줄 믿는다. 인치심은 믿을 때 성령님의 침례로 내재하시는 것이나(1:13 주 참조), 충만은 믿은 후에 간단없이 반복하는 상태이며,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받아야할 것이다.

**⑫WBC.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카 이 메메뒤스케 스테 오이노 엔 호 에스틴 아소티아 알라 플레루스데 엔 프뉴마티). 이것은 ... 말고...하라"(... 알라)로 되어 있는 일련의 대조 중에서 마지막 명령이며. 또한 이 대조의 후반부에 모두 종속되어 있는 일련의 분사들로 안내 한다. 전반부의 표현과 잠언 23:31 및 『열두 족장의 언약.B (Testaments Of the Twelve Patriarchs)과의 관련성은 ‘양식/구조/배경’에서 논의되었다. 이 문구의 보다 구체적인 의미는 처음에는 상당히 놀라운 것으로 보이는 앞의 권면들의 전반적인 성격으로부터 하나의 변화를 소개한다. 술 취하는 것을 금하는 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일반적인 권면 전승의 일부로 포함되었는가. 그리고 이 문구가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명령과 적절한 대조를 제공하기 때문인7개 어떤 이들은 이 명령이 회중들의 잘못된 행위. 가령 고린도전서 11:2 1에 나타나는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주어졌다고 주장한다(Schlie u 246: Gnil-ka. 269: Houlden. 328: J. D. G. Dunn. Jesus and the Spirit(London: SCM. 1975) 238:

Adai. Der hejjige Geist 223. 226 참조). 이 구절이 계속 회중들의 예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에 고린도에서 있었던 문제들이 이 편지가 보내지는 여러 교회에서 반복되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으며. 또한 금지의 근거 구절이 너무나 빈약하여 그러한 위반에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아울러 Meyer. 284:Abbott. 161: Schnackenburg. 241를 참조하라). 다른 이들은 그 명령이 이방 그리스도인 독자들 중 몇몇 사람이 이전에 빠졌던 이교 신비 제의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며(Ernst. 379: Mussner. 148). 또 어떤 이들(Rogers. BSac 136 [1979] 249-57: M. Hengel. Between Jesus and Paul. 188 n. 7)은 디오니시안 제의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그러한 제의들이 광범위했다 해도. 역시 그들이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어떤 분명한 증거는 없다. 다른 이들은 여전히 이 금지와 앞의 16절의 사상을 연결 시키고자 하며. 그리하여 저자는 술 취하는 것이 악한 날에 살아가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악한 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Barth. 581: Mitton '188-89: Adai. Der hejjige Geist. 223. 230). 그러나 좀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인접해 있는 내용과의 연관성이 처음에는 어리석음과 지혜 사이의 기본적인 대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권면의 바로 앞 단락에서 발견되는 어두움과 빛의 대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대조 배후에 놓여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과 로마서 13장 모두에서 바울은 술 취함을 어두움의 주된 특징으로 말했다. 이오F는 대조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6-8에서 술에 취하지 않는 것은 빛의 특성으로 간주된다. 로마서 13: 12. 13에서 술 취함은 이 곳 에베소서 5장처럼 방탕과 관련이 있다. 그리하여 저자는 아마도 이러한 자료들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며. 그는 나중에 6:11-17에서 다시 신자들의 전신 갑주에 대해 자신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또한 이 단락 서두부터 믿지 않는 자들의 어리석은 행동과 믿는 자들의 지혜로운 행동 사이를 계속 대조하기 위해 이러한 것들에 의존해 왔다. 술 취함에 대한 신약성경의 다른 언급들은 마태복음 24:49, 누가복음 12:45, 고린도전서 5:11, 6:10, 디모데전서 3:8, 디도서 2:3 그리고 베드로전서 4:3을 포함한다. 여기 에베소서 5:18에서 술 취함은 방탕으로. 즉 성적 부절 제에 이르게 한다고 말한다. 아소티아(ασιτία. "방탕")는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 오직 디도서 1:6과 베드로전서 4:4에만 사용되는데. 이 곳에서 이 술어는 앞 구절에 나온 술 취함에 대한 언급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한편 동족 부사는 누가복음 15: 13에서 탕자의 삶의 방식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곳에서 이 술어의 사용은 우리에게 앞의 4: 19에서 이방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저자의 철저한 정죄를 생각나게 하는데. 그 곳에서는 동의어 아셀게이아("방탕")가 사용되었다. 또한 로저스(Rogers. BSac 136[1979] 256 ' 이를 따르는 Adai. Der hejjige Geist. 223. 225)와 함께 너무 정확하게 되어 이 악을 구체적으로 디오니시안 제의와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

술 취함의 개념으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개념으로의 이동은 첫눈에 보이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전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한편. 후자는 지혜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외적인 힘의 지배를 받는 자아와 관련이 있으며. 또한 술에 취한 상태와 종교적 도취는 종종 비교되기도 했다. 누가의 오순절 기사에서 최초의 신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한 것이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를 받았는데(행 2:4.13.15 참조). 이러한 내용은 종종 이와 관련하여 인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에베소서 저자가 실제로 사도행전의 구절에 의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증거가 없다(이와 다른 견해는 Mitton. 205-6를 보라). 그러나 술취함에 대한 필로의 숙고도 마찬가지로 빛을 비취 준다 그는 술 취함을 영적인 어리석음과 동일시했을 뿐만 아니라(DeEbr. 11. 95.125-26, 154), 술 취함과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는 것 사이의 대조를 보기도 했다. "이제 은총이

영혼을 채울 때. 그 영혼은 기뻐하고 웃으며 또한 춤을 춘다 이는 그 영혼이 소유하고 있으며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빛이 비취지지 않은 많은 사람에게 그것은 술에 취해 있고. 미쳐 있으며. 또한 정신이 나간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이는 하나님이 소유하심으로 그 영혼이 말하자면 무아경으로 자극될 뿐만 아니라 그 옴도 상기된다.

그리하여 많은 어리석은 자들은 이를 잘못 생각하여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들을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그리고 이렇게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취한 것도 사실이다'(De Ebr. 146-48). 술 취함과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것 사이의 에베소서 대조 배후에 놓여 있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종류의 대조일 것이다.

명령형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따라서 신자들의 성령님 충만의 경험이 지속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플레루스다이(띠TJPOVClem)와 함께 도구적인 의미의 엔(강)을 사용한 것은 특이하다(아울러 Abbott. 161-62: J. A. Robin son. 204: Schnackenburg. 242와 n. 598을 참조하라). 신자들은 성령님에 의해 충만해 져야 하며. 또한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개념은 3: 19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과. 또한 1: 23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서 교회의 개념을 상기시킨다(아울러 4:13을 참조하라). 분명히 성령님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충만과 그리스도의 충만을 중재하신다.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은 이 단락의 중심부에 있으며. 또한 앞에 나온 지혜와 뒤에 나올 예배와 연관성이 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두 부분에 대한 능력을 제공하신다.

자신들이 이미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았으며(1:13, 4:30)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4:30)을 상기하고 있는 신자들이. 이제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의식하는 가장 충만한 지배를 하시도록 해야 하며 또한 지속적으로 그들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하도록 해주시는 분에게 그리고 그들의 예배와 감사에 활력을 주시는 분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열도록 권변을 받고 있다. 속사람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은 이미 3:16에서 언급되었으며. 또한 이 서신 앞 부분의 중보 기도 기사에 나오는 1:17에서도 성령님은 지혜와 연결되어 있다.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 것과 예배 사이의 관련성은 19-20절의 종속 분사들을 통해 나타나는 바. 이는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성령님의 충만의 경험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이와 다른 견해는 Adai. Der hoùge Geist, 225-26를 보라. 아다 이는 이 본문에서 특별한 신학을 읽어 낸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분사들은 경험의 수단보다는 오히려 경험의 결과로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다.

영성회복훈련원(<https://cafe.daum.net/0675sms>). 양승식목사 제공